한발한발 패기있게 실천하는게 道

☞ 19면에서 계속

가 있는 그 한군데 모두 더불어 같이 있는 도를 자기가 가지고 다니면서 다른데 가서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질문2: 깨달음을 추구하는 우리 신도들의 마음가짐에 관해 질문을 올리고자 합니다. 어느 선지식께 깨달음에 관해 질문을 드리자 깨닫기 전에 나무하고 물 긷고 깨달은 후에 나무하고 물 긷고 라고 답했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마음이 바뀌었을 뿐 외부 환경은 달라진 것이 없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공감이 가는 말이었습니다. 깨닫게 되면 주위의 여건이 획기적으로 바뀌고 모든 것이 원활하고 편안하게 돌아갈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IMF의 영향으로 다니던 회사에서 퇴출될 때 마음의 아픔이 많았으며 퇴출 금융기관인 지금의 회사에 다니면서도 직장의 특성상 마음의 불안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돌하나도 버릴게 없어

그리고 최근에는 피부에 염증이 생겨 손등 부위가 물집으로 심하게 부풀어 오르고 보기 흉하게 되자 무심으로 주인공에 맡겨 놓고 활동하려고 하면서도 저도 모르게 눈길이 손등으로 옮겨가서 짜증스런 마음이 순간 올라오곤 합니다. 이러한 저의 마음자리를 지켜보면서 나름대로 선원에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아직도 먼 길이 남아 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일부 도반들은 이러한 실망감이 쌓이고 또 속히 깨달음에 이르고 싶다는 집착으로 다른 길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정 깨달음이 이런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부분이 아닐진데 한마음을 추구하는 우리 도반들이 묵묵히 마음자리를 지켜보면서 한걸음 한걸음 깨달음을 향한 걸음걸이를 착실히 내딛을 수 있는 가르침을 바랍니다.

스님: 이거 내가 말하면 아주 쉽다고 말씀할는지 모르겠어요. 허나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생활 자체가 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 깨달은 다음에 그리고 깨닫기 전하고 깨달은 후하고 이것이 마음만 변경이 되지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항상 말하죠. 조금도 고정됨이 없이 화해서 돌아간다. 고정된 게 하나도 없이 자꾸 돌아갑니다. 그겁니다. 그 말씀한 게.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는 대로 활용을 하지만 함이 없이 그냥 한다. 그래서 모두가 더불어 같이 살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것이 하나도 없이 그것도 내가 아픈 것이 아니라 더불어 같이 아픈 겁니다. 그것도 공부하라고 그런 거지 병이 들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불어 같이 사는 도리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모습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더불어 같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가끔 텔레비젼에서 악마가 속에서 화해서 선지식으로 나왔다가 속에서 금방 변해서 악마로 변하죠. 그런데 거죽으로는 악마로 나왔다가 속에서 선신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이 공부할 때에 속에 선신이 들어 있어야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사람을 살리는데 화해서 나툰다 하더래도 남을 위해서 해주지, 악이 속에 들어 가지고 거죽으로는 아무리 선지식으로 생겼어도 소용없다는 얘기죠. 그거는 하나도 이익을 주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악만 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악이다 선이다 하고 따로 따로 있지만 이 공부하는 데는 선지식으로선 악도 없고 선도 없다 이렇게 나오죠. 한생각이면 악도 바꿔지고 한생각이면 선도 바뀌지니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무리 착하게 선이 있다 하더래도 안된다, 선이 있다 하면 악이 들어가니 선만 있어도 안되고 악만 있어도 안된다, 양면이 다 없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배우는 여러분이 이 모습과 생각의 욕심과 의식으로 모두 배겨 있기 때문에 급하게 뭘 좀 갖기 위해서 그렇게 변경을 하는 거죠. 변경할 게 하나도 없어요. 억수같은 장마가 져서 배를 타고 간다 해도 변경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될 때 선장이 내가 되고 배가 내가 되고 배에 탄 중생이 내가 되고 다 둘이 아닌데 바람 불고 비 오고 그러는 것도 바로 내가 용인데 뭐가 잘못 되겠습니까? '비가 오면 안돼' 이러면 안 오는 거죠. 그래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이 진짜로 법이 될 수 있겠끔 열심히 공부를 하시라 이겁니다.

질문3: 스님, 우리 손주 사랍 좀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 7남매 자손 한마음 공부하게 한마음 내시어서 이끌어 주세요. 이 말씀드리려고 제가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스님: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아셔서 도량껏 아셔서 하실려면 발바둥이 들어서야 알게 되겠죠. 여러분이 아셔서 여러분이 하셔야지 되는 거지 남을 기대기만 해선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외국에 나가 계신 분들은 외국에 있기 때문에 참 어렵겠구나 하고선 어쩔 땐 그냥 제가 대신 심부름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대신 심부름을 하게 되면 그 당시는 좋지만 다음에 내가 이거를 완벽하게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게 어렵죠. 자식들도 그렇구요. 부모가 잘 배우면 자식들은 물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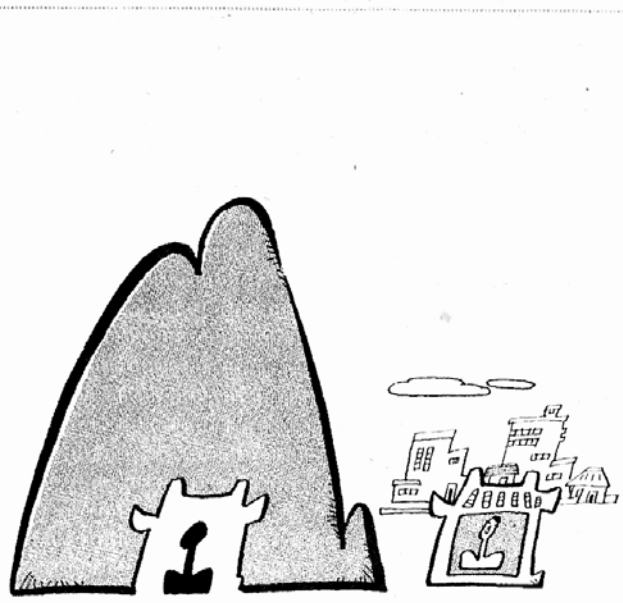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道는 자기가 가지고 다니면서 왜 다른데 가서 찾으려 애쓰나

또 이생을 사는 거는 물론이겠지만 내생을 살려면 자기네들이 배워야죠. 여러분이 더불어 같이 살아야만 하기 때문에 전에는 모든 얘기를 해 드렸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 보세요. 각 사찰에 가셔서 부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좋아요. 또 이렇다 저렇다 하고 얘기를 들으면 듣는 그 순간 그건 없어지고 과거로 돌아간 얘기죠. 그 얘기를 들으시고 본인이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체험하고 실천해 보는 그것이 바로 부처님 법입니다. 그러니깐, 외국에도 어디서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질문3: LA에서 왔습니다.

스님: LA에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다니면서 법회에 참석하세요. 법회를 보시고 달려 들으면은 그래도 어딘가 자기가 그런 일을 해 낼 수 있다는 얘깁니다. 가시면요 여기서 이렇게 설법하는 것도 거기 나오니까 꼭 그렇게 열심히 하셔서 꼭 실천을 하시도록 하세요. 그것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고정됨 없이 화하는 법

그래서 그 배우러 다니시더래도 각 사찰에 다닌다 하더래도 내 앞에 닥치는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하고 남의 것 쫓아가서 잡지 말고 가질려고 애를 쓰지 않는 거를 배우세요. 여러 가지 잘 배우십시오. 그저 사람이 이렇습니다. 사람이 조금 있다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래 죽을지 이것도 모르면서 또 내생에 산다 하더래도 차원을 그렇게 가지고 나와서 모습과 차원과 삶을 다 가지고 나와서 사는 대도 불구하고 그런 거 전혀 모르고 그냥 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좀더 현실이 미래이고 미래가 바로 현실이라는 거를 알면서 그렇게 해 나가야 진짜로 지금 고생하는 여러분처럼 살지 않아도 신선처럼 살 수 있는 그런 이치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고생이 되더라도, 한생을 고생하시더래도 앉을 자리가 바로 자성불 앉을 자리가 다보탑이로구나, 이 세상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하고 자꾸 배워서 우리가 이 다음에 아니 지금 살면서부터 모든 걸 알고 가시고 과거의 어떠한 귀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겁내지 말아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산중에서 공부할 때 무서운 거를 몰랐는데요, 산중에서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 갑자기 있었던 일이라 자기가 무서운지 안 무서운지도 모르면서 그냥 뛴, 거예요. 그런데 뛰다가 보니까 뻘기풀에 그냥 엉덩이를 꼬나 박았죠. 박고 나서 아이구! 하고 죽었다가 아니라 아이구 하고 엎드려져서는 아! 사람은 한 번 죽지 두 번 죽지도 않는데 내가 뭘 보고 뛰었나 그러구 다시 올라간 거예요. 다시 올라갔는데 엉덩이 아픈 것도 없어지고 거기에 나온 그 사람들도 없어지고, 그런데 그게 바로 공부를 할려면 그렇기도 하고 허하면 그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죠. 전자에 원수가 져서 꼭 너를 죽여야겠다 하고 따라다니다 보니까 '얘 너하고 나하고 둘이 아닌데 뭘 죽이고 자시고가 있겠어?' 어떤 걸 죽여 하니깐 눈만 말뚱말뚱 뜨고 쳐다보고 있더니 '그렇긴 그래' 그러더니 한데 합쳤대요. 그리구 나서는 영 집안에 그런 일이 없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어떤 분들은 그런 일들도 많죠.

새로 요사채를 지었는데 문을 열고 내다보고 섰으니깐 똑, 예전에 그 왜 이런 게 있죠. 나무로 짓고 거기서 내다 보고 섰는 내 모습, 그것이 딱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습이 아무리 크고 좋은 데를 살아도, 큰데서 사는 게 아니요, 아무리 작은데서 살아도 작은데 가 아니라, 이 모두가 생각하기에 달린 거다, 생각하기에 달린 거지 생각에 의해서 자기가 자포자기하고 죽기도 하고 잘못 살기도 하고 괴롭게 살기도 하고 또는 자기 생각으로 인해서 모든 게, 그래서 예전에도 그랬잖습니까?

예전에는 여기 주위에 집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공양주 더러 오늘은 도선생님이 오실테니까 잘 좀 생각하라고 그러고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정말 도선생님이 왔어요. 그래서 뭘 주시려느냐고 그랬죠. 그랬더니 아무 소리 없이 쳐다보기만 하고 있어요. 아주 그냥 신사로 싹 재서 입구요. 그래서 그랬어요. 뭐가 필요하면은 낮에 오시지 왜 밤에 오셨느냐구요. 신사복을 입고 다니는데 그 신사복이 더럽겠는데, 그러고 시계 있던거 하고 돈 몇푼 있는 거 하고 주니깐 받아 들고는 그냥 섰어요. 받아 들곤 섰어요 그냥, 아무 말도 없어요, 아무 말도 없이 받아 들고 우두커니 들여다보곤 날 보고 섰어요 그냥. 아무 소리 없이 섰다가 그냥 도로 주고 갈까 가지고 갈까 아마 걱정을 하는 모양이예요. 그러더니 시계는 빼놓고 돈만 가지고 아무 소리 없이 나가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는 영 없어요 그런 일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여러분이 패기를 가지고, 어떤 분들은 지금 집을 비워놓고 어디 간다고 그러는데 집을 잠구고 가는 게 아니라 열어놓고 하루 저녁 자고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갔다 오니깐 말짱하게 고대로 있더랍니다. 그런데 그 날 저녁에 꿈을 꾸니깐 군인들이 문 앞에도 서 있고 집을 뺑 둘러싸고 지키고 있더랍니다. 그러면서 늦게 다니지 말고 빨리 다니더라는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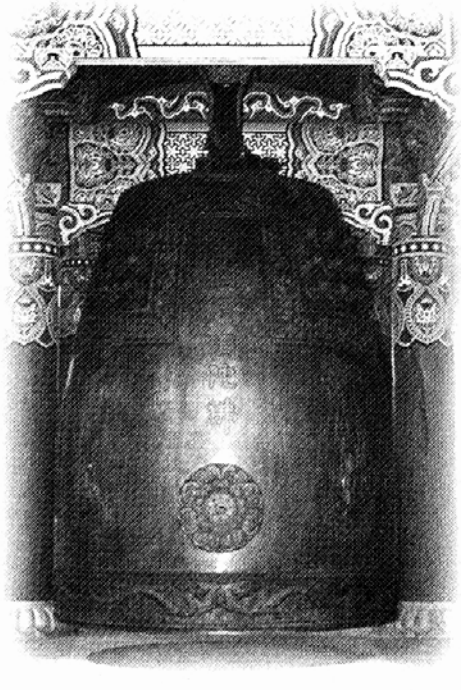
너와 나가 둘 아닌 도리

그리고 두번째는 집들이 많이 들어섰는데 돈 있는 사람들, 군인이였던 분들도 여기 와서 집을 지었는데 하루는 들어와서 앉았기는 한데 지하실에 있는 거예요. 이층 방에서 보니깐 지하실에 있는데 지하실에 있는 걸 어떻게 불러야 놀래지 않고 나올까 하고 슬슬 내려가서 아무 짓도 안할테니까 나오라고 하면서 지하실에 불을 켜 놓고 그러니깐 한참만에 신발을 들고 나와요. 지하실에 있는 건 어떻게 알아서 부르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실에 밤새도록 있겠느냐고 그러면서 물어보니깐 어머니 한 분 모시고 산대요. 요 아래서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보내 줄테니 앞으로는 없으면 낮에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하지 그러지 말라고 그러구 보냈는데요, 말이 쭉 많은데 간단하게 해요. 그랬더니만 그 이튿날 아침에 쌀하고 돈하고 해서 부모봉양 잘하라고 보냈는데, 그것도 어쩔 수 없으니 불쌍해요.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삭월세를 얻어 가지고 사는데 방을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예요. 정히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와서 얘기를 하지 어째서 그러느냐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한푼도 안준다는 거예요. 나한테 물어 봤느냐고 그랬어요. 한 스무살 좀 넘었겠나 그런데, 그래서 방을 전세로 얻을 거 하고 쌀하고 연탄하고 그때는 필요하니깐 그게, 그렇게 해서 보냈죠. 그러니깐 도둑이 도둑이 아니예요. 도둑놈 정말 있는데도 가지러 오는 사람은 들어오지 말고 정말 그래서 들어오는 사람은 들어와서 가져 가더래도 걱정 근심이 없죠. 그러니까 잊어 버리더래도 내가 잊어 버렸단 말하지 말고 보시했구나 참 잘 했다 이렇게 하세요. 그저 편안하게 생활 속에서 공부 열심히 하세요.

※위 법문은 2000년 6월 18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가야산 법보종찰 해인사 대범종



장인정신

鐘宗社
서울 사무실 :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40 청송 302호 ☎ 02)725-0878
공장 : 충북 청원군 북이면 석성리 460 ☎ 043)212-0903